

미국 샌드위치 시장 새 바람

기존 삼각 모양 대신 등근 '롤업' 인기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샌드위치의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는 만드는 방법이나 형태가 너무 단순해 굳이 가게에서 사먹는 품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더욱이 5년전만 해도 단거리 국내선을 이용할 때 항공사들이 삼각 샌드위치를 서비스로 제공했으나 현재는 베이글, 홀콘롤, 머핀 등으로 바뀌어 시장에서 삼각 샌드위치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각 업체들은 삼 phẩm성을 갖춘 샌드위치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새로 개발된 상품이 장방형의 '서브마린 브레드(잠수함과 닮은 모양)'에 여러 부재료를 끼워 넣은 '이탈리안 브레드', 조리도를 높인 충전물을 사용한 '핫 서브 파니니' 등으로서 이들 제품은 새로운 샌드위치의 가능성은 확인케 했다.

최근에는 '롤업(ROLL UP)'이라 불리우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첫째 식사 메뉴로 불리지 않을 정도로 분량이 적은 라이트 메뉴일 것, 둘째 차를 운전하며 한손만으로 먹을 수 있는 간편성을 갖고 있을 것, 셋째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EASY FOOD)일 것 등 소비자들의 욕구에 기초를 두어 개발된 상품이다.

롤업 샌드위치는 지금까지 빵으로 충전물을 덮은 형태인 기존의 샌드위치와는 다르게 충전물을 말아놓은 형태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현재 런치 또는 스낵용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충전물로는 스모그 타키, 훈제연어, 카레 치킨 셀러드, 로스트 비프와 체다치즈, 검은 콩 등으로 다양하다. 냉동보관기간은 6개월, 냉장보관은 5일 정도이다.

클린턴 부인, 쿠키 경연서 승리

부시 부인과의 대결 후 '2연승'

미국에서 대통령 부인이 되려면 제과기술도 뛰어나야 한다?

지난해 미국대통령 선거 전 영국의 한 잡지에서 실시한 미국 퍼스트 레이디 후보의 쿠키 만들기 대결에서 힐러리 클린턴 부인이 엘리자베스 돌 부인을 제치고 승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가정잡지 <헤밀리 사크르>는 지난해 말 클린턴 부인과 돌 부인의 쿠키 콘테스트 결과, 클린턴 부인의 초코칩 쿠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힐러리 클린턴

은 4년전 바바라 부시 부인과의 대결에서 이긴 이후 두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잡지 관계자는 "클린턴 부인의 초코 쿠키는 조리시간이 10분에 불과하며 65칼로리, 지방 3.5g인데 비해 돌 부인의 피칸쿠키는 45분의 시간과 91칼로리, 지방 7.68g이어서 클린턴 부인의 제품이 간편함과 건강식이란 점에서 호평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출점지 조사 시스템

상권분석 등 정보 검색 시간 단축

일본 맥도날드는 지난해 말 출점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컴퓨터 화면으로

검토 가능한 소프트 프로그램 '맥지스(맥도날드 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개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에서 연간 300~500개를 출점하고 있는 일본 맥도날드사는 출점 후보 지역 선정시 필요 정보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94년부터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개발비로 50억엔(350억원)이 들어간 이 시스템은 5천분의 1~25만분의 1의 칼라 지도로 지금까지 사용됐던 지도보다 알아보기 쉬운 점이 특징으로 사방 500m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상권내 총인구, 취업인구, 남·여비, 연령별 구성비 등 각종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호밀빵, 심장마비 예방 효과 있다

美 심장학회 연구보고서에서 밝혀

최근 호밀과 도정하지 않은 다른 곡물로 만든 빵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핀란드국립보건연구원의 페르요 피에티넨 박사는 최근 호밀빵이 체내의 식물섬유를 증가시킴으로써 심장마비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능을 크게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일, 야채 등 섬유가 함유된 다른 식품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호밀과 같은 도정하지 않은 곡물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50~69세의 남자 2만 1,930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식물섬유 섭취량과 심장병의 관계를 조사분석한 결과 평소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 외에 하루 10g의 식물섬유를(호밀빵 3조각정도)를 추가로 섭취하는 경우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7%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